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의날 기념행사 추진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가 지난 19일 저녁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9월 중순께 '고창군 청년의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고창군 청년의날 기념행사 운영 계획을 비롯해 △하반기 청년정책협의체 추가 구성 계획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위원들은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분야의 정책 제안과 더불어,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의체가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창군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 개량 지원 추진

정읍시가 석면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화될수록 석면 비산 위험이 높아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03억 3785만원을 투입, 총 333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시는 올해도 총 18억 3800만원을 투입해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차 사업에서는 219동을 선정해 약 70여 동의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 2차 모집에서는 118동이 접수됐고 이 중 110동이 최종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첫 종교문화유산’ 동판 제막

정읍시, 증산 강일순 탄생지가 지닌 역사·종교적 가치 기려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증산 강일순 선생 탄생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돼, 21일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주최로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제막식은 근대 전환기의 사상가이자 종교 지도자인 강일순(1871~1900) 선생의 생가터가 지닌 역사·종교적 가치를 기리고, 전북 첫 종교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증산 강일순 탄생지는 2021년 5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10월 전북자치도 종교문화유산으로 승격됐다. 시는 이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판을 제작, 이날 제막식을 통해 선보였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박일 시의회 의장, 윤은도 대전대학교 이사장, 배규한 대순사상학술원장, 장석환 총장 등 종교·학계 인사와 대순



진리회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강일순 선생의 생가터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역사·민속·학술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북 종교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만큼, 보존과 활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술 연구와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가치를 확산시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증산 강일순 탄생지를 비롯한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전북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유산 77개소 안전점검

정읍시, 보수 · 관리 대상 50건 선정… 필요 사항 구분

정읍시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7월부터 8월 20일까지 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관리 대상 50건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총 126개 국가유산 가운데 박물관 등에 소장된 동산과 무형유산을 제외한 현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11개소, 국가등록유산 7개소, 도지정문화유산 45개소, 도등록문화유산 1개소, 향토문화유산 13개소 등이다.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 안정성, 안전관리 체계, 유산의 원형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 77개소 중 38개소에서 총 50건의 보수·관리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유산별로는 국가유산 7개소, 도 유산 26개소, 향토유산 5개소이며, 보수 규모는 경미한 보수 20건, 전



문 보수 20건, 상시 관리가 필요한 사안 10건으로 구분됐다.

시는 경미한 보수는 전북사부문화유산돌봄센터와 국가유산 관리단을 통해 즉시 추진하고, 전문 보수 대상은 올해 자체예산을 활용해 보수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15건의 전문 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 대상 확대

부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 부분소 지원 신설

부안군이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신설(부분소 20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전소(최대 1000만원 지원)와 반소(최대 500만원 지원)만 지원대상이었으나, 화재 피해 규모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

민의 생계유지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부분소(최대 200만원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피해 주민 대다수가 고령 등 취약계층으로 분석됨에 따라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개선되었다.

군은 소방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새

로이 신설된 부분소(소실 면적 10% 이상 30% 미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안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제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국 8도 로컬푸드 박람회서 김치소재 홍보 · 판촉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21~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8도 로컬푸드 박람회’에 참가해 고창의 우수한 김치소재와 김치제품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판촉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창 맞춤형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참여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창의 청정 농산물을 원료로 한 우수한 김치소재와 다양한 김치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창읍에 위치한 오베이골농원(대표 이영희)이 고창군을 대표하여 참가해 고창산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김치 및 김치소재를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한다.

또한 고창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B2B 상담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이사장(심덕섭 고창군수)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창의 청정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김치소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6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경, 중대재해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추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춰 중대재해 사건 전담반을 구성하고,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검토가 지시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

특히 수사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우선 선발해 전담반을 편성할 계획으로 산업안전 등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청 등 여러기관과 중대재해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